

'괴물 폭우' 덮친 광주·전남 15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광주, 북구 등 3곳·전남, 나주시 등 12곳
공공요금 감면·복구비 추가 지원 등 혜택

지난달 '괴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1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6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

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자은·흑산면 등 전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앞서 지정된 담양군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은 총 16곳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정확한 피해 산정과 정부 설득에 주력해 왔다.

전남도 또한 피해 발생 직후 공공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공공시설 복구비 28억1천만원을 피해가 많은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앞장섰다.

강기정 시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침

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일선 시·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선지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피의자 신분'

김건희 "죄송"... 첫조사 7시간여 만 종료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7시간여 만에 끝났다.

6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오전 10시 23분께 조사가 시작된 후 7시간 23분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분조사 열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도착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10분가량 '지각'했다.

흰 셔츠와 검은 재킷, 검은 치마에 검은 구두 차림을 한 김 여사는 차에서 내려 검은 표정으로 빌딩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검은 손가방을 든 채였다. 휠체어를 타고 올 것이라 일각의 예상을 깨고 예고한 대로 걸어서 들어왔으나 다소 규정이 흔들리는 듯 불안정한 걸음걸이었다.

빌딩 입구로 들어서서는 35초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김 여사는 입을 다문 채 바닥만 바라봤다. 다소 긴장한 얼굴로 걸어 들어간 김 여사 뒤를 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김 여사는 건물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특검 향하는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

를 숙였다.

취재진이 '국민에게 할 말씀 있느냐'며 질문을 이어가자 "죄송합니다"라고 한 차례 대답한 뒤 이어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10시 23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0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오전에 1차례 10분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삼부도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Today

'은퇴는 없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12면

남도인물열전...소쇄원 주인 '양산보' 14면

'내일' 건재... "KIA에겐 내일이 있다" 16면



社 告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10월 15일까지 접수...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광주매일신문은 사진예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을 개최합니다.



제16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대상작 윤명자씨 '크로노스'

전국의 사진애호가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17회째를 맞은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은 그동안 창의성이 돋보이는 우수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최고 권위의 사진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출품 대상은 지역이나 주제에 제한 없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미발표 작품이면 됩니다. 입상작은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가 인정됩니다.

전국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성원을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주 관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 작품 내용 :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컬러 또는 흑백사진
- 응모 자격 : 일반 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 부문 = 중·고교 재학생
- 출 품 료 : 1인당 3만원/4점 이내(단, 학생부는 출품료 없음)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5일까지(도착분)
- 접 수 처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 사진대전 동우회(062-234-2323)

'화재 발생'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해체 허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공정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가 화재 발생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해체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정련공정 건물에 대한 건

물 해체를 이날 허가했다.

이에 앞서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안전 조치 보강 등 조건부로 해체 계획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해체 착수는 금호타이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광산구의 감리 지정 절차를 마친 후 착공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이육근 기자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글로벌시대 맞춤형 콘텐츠 제공
국내외 현장견학 병행 실무역량 강화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모집 요강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도민
 모집인원 	50명 내외
 모집기간 	2025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5년 9월 16일 개강 9월 24일~26일 현장학습(부산·진주·일본 대마도) 9월 30일 종강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강의장소 	라마다플라자 충장호철 13층 대연회장
 전형방법 	서류전형_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수강료_250만원(현장 학습비 포함) 문의_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이메일_kjmtv@daum.net 주소_우)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강사진
강신경 교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장

지방자치시대, 관광으로 열어나가는 지역활성화 전략

안태기 교수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호남축제의 문화,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석창호 사무국장
진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축제의 중요성과 지역축제 현황